

“2024년 5월 동행축제” 인천지역 소상공인 우수제품 특별판매전 개최

- 지역 내 60여개 소상공인 우수제품 판매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 이하 인천중기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2024년 5월 동행축제의 일환으로 부평문화의거리에서 인천지역 소상공인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동행축제는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전국적 소비촉진 행사로,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지역 동행축제 중 하나로, 인천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그리고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가 협업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잡화·뷰티·식품 등 60여개의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판매전 기간 온누리상품권 홍보 캠페인도 진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류, 모바일, 카드형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은 2024년 12월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월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의 경우 카드사용 실적에 합산되어 반영되며, 동행축제 기간 BC카드로 3만원 이상 충전 시 3천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지역 내 소상공인 우수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판매전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목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한지연 (032-450-1140)